

코로나시대의 작은도서관, 슬기롭게 대처하기

오혜자 / 초롱이네도서관

- 1) 청주시 작은도서관 코로나19 긴급생활방역 추진논의
- 2) 청주시 작은도서관들의 슬기로운 도서관생활 이야기
- 3) 우리는 알고 있다 - 만평, 청주시작은도서관 소식지

1) 청주시 작은도서관 코로나19 긴급생활방역 추진논의

< 경과 >

- 2020년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청주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휴관
- 2주간격으로 휴관을 연장하면서 기한 없이 대기하는 시간이 이어짐
- 5월 20일 개관이후에도 머무르지 않는 대출반납 등 소극적으로 대처 중

< 논의 >

- 5월 12일 청주시립도서관 정책팀과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의 코로나 대책회의
: 5월 20일 개관을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방역 진입 시 준비사항 점검. 책소독기 및 비대면체온계 등의 물품지원에 대해 제안하고 논의함. 예산긴급편성이나 예산변경의 방안을 찾아보기로 함.
- 5월 16일 청도협 운영자 회의개최, 청주시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참여.
: 작은도서관 개관 대비 생활방역물품지원 및 안전점검 매뉴얼 보급에 대해 논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 및 지역 현황을 좀 더 살펴보고, 예산긴급편성 협의해 보기로함.

▷ 청주시 작은도서관 방역물품 지원방안 협의내용

지역	지원처	지원 방식	소요예산	
책소독기	공사립작은도서관	선별지원 순차적지원 등록관 140개소 중 70여개소 지원가능 (도서구입비지원대상)	개당 300~400만원 예상	시비/재난지원금 기한 없는 임대형식
비대면 체온계	공사립작은도서관	일괄지원(7월초) 등록관 140개소 전관지원	개당10여만원	시비/재난지원금 기한 없는 임대형식

2) 청주시 작은도서관들의 슬기로운 도서관생활 이야기

- 도서관이 쉬는 동안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 이어달리기

① 모처럼 우리는 심심하다 / 참도깨비도서관, 이종수

참도깨비는 열매도감에 나오는 것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생활용품점에서 칸칸이 나눠져 있는 나무 상자를 구입해서 하나씩 모았던 씨앗을 덜어놓아보았다. 해바라기 씨, 동백 씨, 아주까리 씨, 콩, 풍선덩굴 씨, 연밥에서 나온 씨, 분꽃 씨 등등.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다른 그림처럼 애뜻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씨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옛 아씨들의 분갑 같기도 한 아주까리 씨는 기름을 짜서 불을 피우거나 머리에 발랐고, 풍선덩굴 씨는 한때 유행했던 줄라맨처럼 생겨서 원예용 철사를 구부려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머리로 끼워 넣으면 여러 동작을 통해 몇 백 가지 이야기가 생겨난다. 도청 앞에서 주운 침엽수(마로니에) 씨는 가시로 둘러싸인 안 쪽에 단단한 씨가 다시 나오는데, 그것으로 못 생긴 사람 얼굴 조각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심심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이 딱 좋은 때이니 틈틈이 해보길 권합니다.



② 기다리는 마음 /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문을 닫고 한 달 정도 지났나 봅니다. 갑자기 그리움이 몰려와 어쩔 줄 모르다가 벌떡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단을 정리했지요. 언제라도 다시 문을 열면 도서관이 환하게 반겨주어야 하니까요.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모두 마음이 우울해져 있을 것이에요. 흙마당에 백일홍과 봉선화와 과꽃 씨를 심었어요. 골목 끝집 할머니께서 오가다 보시고는 잘한다며 분꽃과 초롱꽃 모종을 나눠주셨어요. 햇살 좋고 잘 보이는 곳에 옮겨 심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3월을 보내고도 4월에도 여전히 휴관 중인 도서관에 앉아 있자니 조금씩 책이 보였어

요. 새 책 옆에 있는 오래된 책들이 더 바래고 낡아보입니다. 한 권 한 권, 낡은 책은 '우리가 많이 만져서 이렇게 되었으니 수고가 많았다'고, 바랜 책은 '우리 옆을 지켜 주고 함께 해주었으니 참 고맙다.'고 속으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서가를 비워 새 책 맛을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5월에도 재난본부는 계속 '상황이 들쭉날쭉 불안정하니 연일 거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렁각시의 손을 빌려 마당에 평상을 만들었어요. '뚝딱'은 아니고 고생 고생, 온갖 씨름을 하며 어찌 어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여기에 누워 책을 보면 정말 시원하겠지요.

5월 20일 드디어 도서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을 지키던 무민과 몽실이, 피노키오와 곰인형오토가 마스크를 쓰고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반가와 했는지요. 못 본 동안 달라진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알아봐주었습니다. 쑥쑥 자란 봉선화 꽃모종은 개관기념 선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집집의 베란다에서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풍성했던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봉선화~ 가져가세요~~~

③ 슬기로운 동아리생활 / 개신글마루작은도서관, 이해원

몽실몽실 손뜨개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이 울린다.

“벌써 5월이네요. 꽃구경한번 못했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는 날이 되었네요. 날은 덥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날아가는 코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끝에 털실을 이용해 코끼리를 만들고 풍선도 만들어 줄을 타고 올라가는 코끼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강아지 키우자고 손자들이 하도 난리여서 아예 한 마리 분양했어요. 짜투리 실로 짜서 알록달록해요”

“응가랑 쉬를 안해서 쩔 이쁘네요. 이런 강아지라면 저도 10마리 분양가능해요”

“아주 편해요 신경 쓸일 없어요”

“코로나로 길어진 방학을 즐기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수세미를 완성해봤어요. 만들다보니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네요!”

“빨리 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어 회원들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도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④ 책을 상자 째 빌려드립니다 / 오송 호반다섯소나무작은도서관, 김남섭

호반다섯소나무작은도서관 관장을 7년째 하고 있다. 올해도 힘차게 작은도서관사업들을 시작하여, 사람향기 뿜어내는 도서관이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코로

나19로 작은도서관을 임시휴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인을 기다리는 책들, 쌓여가 지는 먼지를 관리 하려면 누군가는 도서관을 움직여야만 한다. 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만 없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책을 상자채로 빌려 주어야겠다고 결정했다.

아파트도서관밴드에 '책을 상자채로 빌려드립니다'공지를 올렸다. 연락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문의도 많고 호응이 좋아서 대출도 많이 되었다.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이 응원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저기 비어있어 흰한 책장을 보며 뿌듯함이 가슴을 데운다.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하여 수시로 도서관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고 잠깐 잠깐 불일이 있을 때만 도서관에 머물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도서관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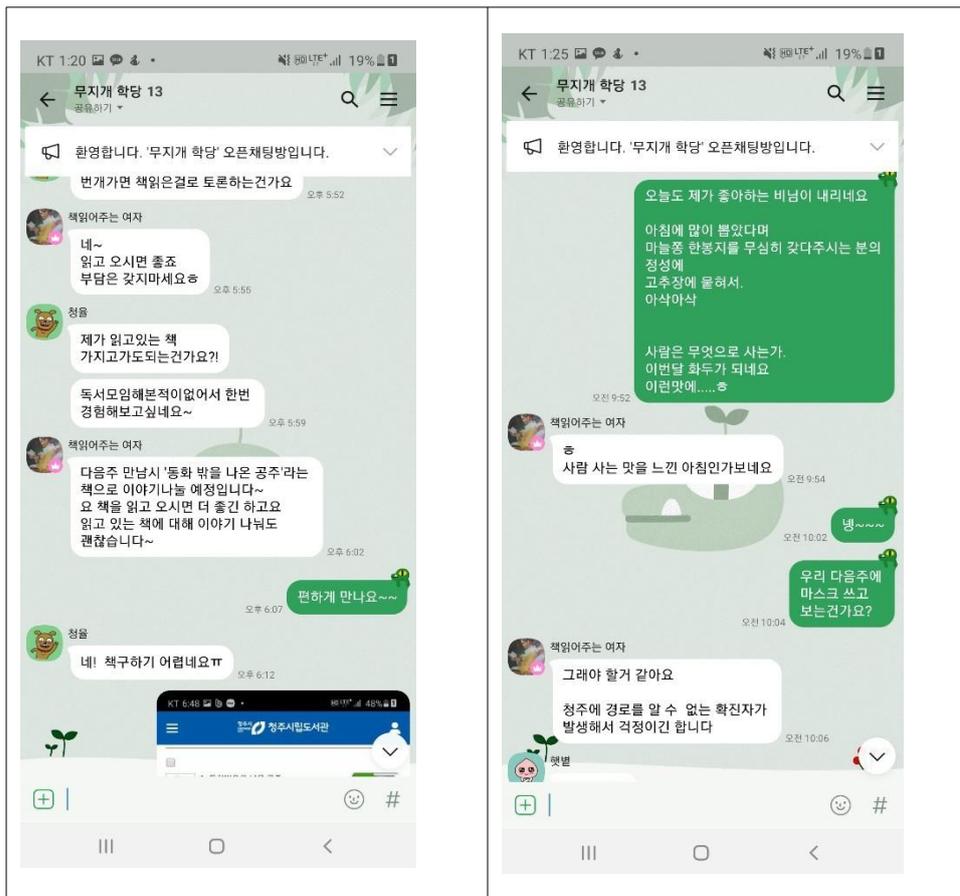
도서관을 찾던 주민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시던 딸기를 팔아 줄 수 없겠느냐고 어렵게 부탁을 하였다. 무조건 해 보자고 했다. 농산물 팔아드리기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별 문제없이 잘 될 것을 예감했다.

이틀에 한 번씩 따오시는 딸기는 유기농에 싱싱하고 맛도 있어, 지금은 미리 예약도 많이 해 주신다. 그 동안은 외국인들 일손을 빌어 그리 힘든 일 없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을 구할 수가 없어 부부가 딸기를 따고 용기에 담고 포장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일손도 부족하단다. 딸기를 초저녁에 갖다 주시면 퇴근한 엄마들이 모두 찾아 갈 때까지는 나머지는 내 일이 된다. 한 달 넘게 진행하다보니 요령도 생겼다.

요즘은 대파. 딸기. 표고버섯. 쌀. 계란을 팔아 드리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 농산물은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라는 것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다. 이 참에 부모님들께서 농업인들의 수고도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급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활동이 마을 단위로 정착해도 좋은 문화인 것 같다.

⑤ 좌충우돌 온라인 책임기 / 너나우리작은도서관, 팽혜영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점점 지쳐갈 즈음 몇 년 전 전주독서대전 스탬프로 참여할 때 보았던 분이 생각이 났다. 온라인으로 독서모임을 한다는 팀이!
 우리도 온라인상에서 독서토론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카톡에 있는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무지개학당이란 멋진이름을 걸고, 처음엔 이용자들이 잠시 잠시 얘기만 나누다 나가더니, 점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올리고, 마음에 드는 텍스트를 올리다보니 공감하는 마음이 생긴듯하다.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책임기 나눔이 되어 점차 찐회원들이 생기게 되었다.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책나눔, 얼마나 많은 이야기꽃을 피웠는지. 오프라인 책모임을 온라인과 병행하면서 책들을 나누고 정독하다보니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 할 수 있는 답을 각자 찾아 가는 것 같다. 도서관도 코로나시대의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다른 도서관들도 함께 도전해 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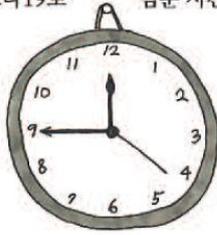


3) 청포도 만평 - 청주시작은도서관 소식지 제7호

우리는 알고 있다

J.K.

코로나19로 멈춘 시간 속에



우리의 작은도서관도 일단은 멈췄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활동가의 활동은 멈췄는가?



시곱바늘같이 우리가 서있다.

도서관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교육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과연 멈췄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멈춤 속에서도 공동체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